

## 癡菴 申奭鎬선생의 學恩

趙 恒 來\*

癡菴 申奭鎬 선생님을 필자가 처음 만나 뵈게 된 것은 1961년 8월 3일로 기억된다. 당시 필자는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한국사와 문화사를 담당하는 전임대우강사였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에 재학 때는 학부에서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반드시 학점(6학점)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필자는 斗溪 李丙燾 선생님의 지도아래 <李朝成立과 田制改革의 歷史的 意義>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필자는 졸업 후 대학에 시간강사로 전전하다가 대학에 자리를 잡고 주위가 점차 정돈되어 안정을 되찾게 되자 한국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이 시기를 전공하는 기성 교수나 동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지도할만한 선생님이 절실하였다. 필자는 생각 끝에 치암 선생님을 국사편찬위원회로 찾아 뵈기로 한 것이다. 선생님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때 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史學科에서 朝鮮史(한국사)를 전공하시고, 1929년 이후 조선총독부 朝鮮史編修會, 광복 후 國史館, 國史編纂委員會에서 修史 전반을 책임지시고 계셨다. 이와 함께 1946년부터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겸직하면서 후진의 지도와 육성에 소홀함이 없으신 선생님이셨다. 때문에 필자는 치암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斷定이라고 생각하

---

\* 전 淑明女子大學校 韓國史學科 教授

였다. 필자가 선생님을 만나 뵈 그날은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결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필자의 向方을 상의 겸 지도를 간청하였다. 선생님은 필자와 대학교 시절에는 별인연이 없으시면서도 필자의 간절한 所望을 들으시고 초면에도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 후 공휴일이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선생님을 사무실이나 자택을 찾아뵈을 때마다 선생님의 配慮는 필자에게 深度있는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더욱이 1970년대에 대구 영남대학교 총장에 霞城 李瑄根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치암 선생님께서는 대학원장으로 와계셨다. 때문에 필자는 이 두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행운을 맞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 중에서 관련된 논문을 모아 두 권의 논저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sup>1)</sup> 《韓末社會團體史論攷》(형설출판사, 1972)는 치암 선생님이, 《開港期對日關係史研究》(형설출판사, 1973)는 하성 선생님이 각각 賀序를 써주셔서 필자를 격려해 주셨다.<sup>2)</sup> 이 줄거 가운데 이글과 관련된 치암 선생님의 하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료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高宗 이후 最近世의 사료이다. 국가기록인 承政院 日記와 備邊司 謄錄이 이미 간행되어 있으나, 일제 침략이후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의 기록은 다만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오, 내용은 불만한 것이 전연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상세한 사료는 駐韓日本公使館과 統監府의 기록인데, 이것은 8·15해방 당시 일인이 모두 소각해 버렸다. 다행히 그 일부의 사진원판 4만여 장을 본인이 구출하여 현재 國史編纂委員會에 보관되어 있으나 전체의 사료에 비하여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 당시의 신문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 
- 1)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韓國史學論叢》-論述目錄-, 1007~1013쪽, 아세아문화사, 1992.
  - 2) 朴容玉, <回顧와 展望>-近代-,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研究彙報》제4호, 18쪽, 1974; 李炫熙, <회고와 전망>-근대-, 앞의 책, 《한국사연구회보》제21호, 23쪽, 1978.

이것도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일부분씩 각 대학도서관에 분산되어 있고, 기타 사회단체나 개인의 기록은 새로 발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 趙君은 사료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大邱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자니 그 苦衷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방학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혹은 서울에 올라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일본공사관기록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대학도서관에 있는 각종 기록과 신문을 조사하고, 혹은 釜山에 내려가 부산시립도서관에 있는 舊日本領事館의 기록을 조사하고, 또는 일본에 자료를 주문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였으니, 그의 끈기와 노력에 대하여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3)” 라고 하였다. 이같이 이 하서를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그 동안 선생님이 필자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 동안의 사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필자는 내심으로 미흡한 줄저에 대해 叱責을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한결같은 선생님의 激勵와 過讚은 지금까지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다.

필자는 1976년 10월 2, 3일, 양일에 걸쳐서 제27회 일본 天理大學부설 朝鮮學會의 年例研究發表會에 주최 측의 후원과 대한민국 학술원장 두계 이병도 은사님의 추천으로 연구발표회의 초청을 받고 대회에 참가하여 <對日修好後の丙子(1876)修信使行について>를 발표하였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출국 전 치암 선생님의 주선에 의해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튿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촉박한 날짜에 맞추어 차례를 따라 바쁘게 서둘렀다. 먼저,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東洋學文獻센터 森正次 文部事務官의 친절로 篠田統 선생과 林巴奈夫 교수의 안내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정과 東洋學文獻書庫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 이어 東京으로 가서

3) 申奭鎬, <序>, 《韓末社會團體史論攷》, 형설출판사, 1972.

大學부설 東洋文化研究所를 찾아가서 평소부터 연구잡지 등 교환으로 알고 있던 植谷忠雄 선생으로부터는 연구소의 현황을 듣고 서고까지 안내하여 전문서의 장서를 볼 수 있었다. 또 선생의 주선으로 東京大學 総合圖書館에 있는 절판본 한 권을 복사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부터 지면이 있는 대한민국 제일교포민단 부단장 金正柱 선생은 공무중에도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관계기관에 연락이나 소개를 하여 주었다. 또한 광복 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史學科 朝鮮史 교수이고, 당시 學習院大學 교수인 末松保和 선생과 치암 선생님의 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 동창이고, 東洋文庫兼任研究員인 田川孝三 선생이 직접 안내하여 東洋文庫를 두루 열람하고 제반 사정을 들었다. 末松保和 선생의 호의로 귀중한 저서를 기증받고 斯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를 받았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 憲政資料室, アジア經濟研究所ポジフィルム 所藏 등 여러곳의 편의까지 바주었다. 그 사이 東京에 머무렀을때 막간을 이용해서 神田區 古書店街를 두루 보고 필요한 책을 사기도 하였다. 東京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로에 九州 福岡에 들려서 九州大學 文學부에 면식이 있는 西谷正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西谷正 교수는 文學部소속 圖書館과 博物館陳列室을 안내하고 소개를 하여 주었다. 또 西谷正 교수의 호의로 朝鮮史學科의 과장인 長正統 교수를 만나볼수 있었다. 長正統 교수는 연구를 위해서 한국에 여러해 동안 유학한바 있었다. 초면 이면서도 앞서 본 文學部 圖書館를 다시 안내하여 장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신설학과인 朝鮮史學科에 대한 그 사이의 사정까지 필자에게 친절을 다해 주었다. 절판본, 귀중본 등은 복사의 편의도 보았다. 이로써 일본에서 필요한 자료를 求得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末松保和 선생과 田川孝三 선생의 제자인 東京大學 武田幸男 교수를 소개하여 주어서 이후 학문적인 교류에 큰 수확을 얻게 되는 學緣을 갖게 되었다.4) 도일 일정을 무사히 끝마치고 귀국후 곧 치암 선생님을 뵈옵고 건문의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은 필자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고 앞으로의 진

로를 다시 한번 시사해 주셨다. 그 후에도 선도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치암 선생님은 필자가 대구에서 서울에 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숙명여자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주선까지 하여 주셨는데, 선생님이 타계하신 후 필자는 결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劉元東 교수 등 학과 선생님이 애써 마련한 교수자리를 1982년에 부임하게 되었다.

치암 선생님은 1981년 2월 13일 영면하셨다. 필자가 그날 서울에 와서 용무를 마치고 대구로 귀가하기 위해서 고속터미널에서 승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 방송에서 조금 전에 치암 선생님이 노환으로 타계하셨다는 것을 듣고 귀가하는 발길을 돌려서 정릉 치암 선생님 댁으로 직행하였다. 방금 운명하셔서 아직 모두 연락이 되어있지 않아 상주 申斗淳, 申解淳 두 분만이 상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할말이 없다는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날 밤은 상주 두 분과 함께 필자는 뜬눈으로 하룻밤을 새웠다. 이튿날 모두 연락이 되어 지금까지 텅 빈 초상집이 문상객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필자는 그날 오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머무름수 없어 선생님의 영전에서 상주님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자주 출입하였던 치암 선생님 댁을 언제 또 방문할 기약도 없이 상가를 떠났다. 그 후 필자가 들은 일이지만 상주 두 분과 필자가 함께, 세 사람이 하룻밤을 같이 한 것을 두고 평소에 치암 선생님의 師事나 學恩 등 그 동안의 사정을 알만하다는 것으로 모두 입을 모았다고 한다.

치암 선생님은 타계하셨지만 필자는 渡日歸國부터 서울에 정착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시기의 연구를 위해서 유의할 점을 다시 가다듬어 보았다. 한국근현대사는 분명히 일제침략의 민족수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침략국인 일제의 침략상과 피침략국인 한국민의 민족독립운동 그리고 일제의 추종세력인 이른바 친일파의 반민족적 행각, 이 3자의 관계가 실증적 연구

4) 趙恒來, <第27回朝鮮學會大會參加記>, 대구사학회, 《大丘史學》제11집, 201~211쪽, 1977.

와 치밀한 논리적 구성이 포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만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제반문제의 규명이 보다 的確해질 수 있다고 깊이 느끼게 되었다.<sup>5)</sup> 이러한 관점을 갖고 시도된, 그 동안에 발표한 논문을 모아 논저, <韓末民族紙의 抗日論調研究>(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79), <一進會研究>(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4)를 비롯해서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편저, 아세아문화사, 1993), 《講座 韓日關係史》(편저, 현음사, 1994),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공저, 아세아문화사, 1994), 《日帝의 對韓侵略政策史研究》(편저, 현음사, 1996), 《國債報償運動史》(공저, 대구상공회의소, 1997), 《開港期 日帝의 韓國侵略史研究》(논저, 아세아문화사, 2004) 등 10여권을 출간한 것이다.<sup>6)</sup>

이같이 필자는 서울에 정착해서 새로운 시각에 초점을 두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평택대학교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 크게 보면 치암 선생님의 德分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승에서의 큰 緣分이라 생각하니 선생님에 대한 感懷가 다시 새롭기만 하다.

- 
- 5) 趙恒來, <日帝侵略과 그 追從勢力>(1904~1910), 한국사연구회편, 《제2판 한국사연구입문》, 475쪽, 지식산업사, 1987.
- 6) 淑明女子大學校文科大學韓國史學科, 《淑明韓國史論》-西巖趙恒來博士停年退任紀念號·論著學術活動-, 513~518쪽, 1996; 앞의 책, <著書篇>, 《한국사연구회보》제77호, 51쪽, 1992; 앞의 책, 제82호, 53~54쪽, 1993; 앞의 책, 제86호, 41쪽, 1994; 앞의 책, 제88호, 78쪽, 1995; 앞의 책, 제96호, 83쪽, 1997.